

IV. 보험산업 전망

1. 주요지표 전망

가. 수입보험료

- FY2005 보험산업은 수요 확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,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고 각종 제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됨.
 - 보험시장 환경 측면에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정이율 하락 압력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내수경기가 완만한 수준의 회복에 그치는 가운데 수요 확대가 곤란할 전망이다.
 -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저금리, 원화가치 강세, 금융시장 불안정 등의 영향으로 자산운용수익률 하락과 환차손 우려 증대에 따른 해외투자 여건의 악화가 우려될 것임.
 - 보험회사의 경영에 있어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각종 제도, 환경 변화가 나타나면서 단기간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.
- FY2005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변액 및 유니버설 상품에 대한 선호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의 성장 정체와 생사혼합보험의 감소세 지속 영향으로 5.3% 성장할 전망이다.
 - 생명보험의 수익성은 기존 종신보험에서의 비차익 감소 및 준비금 적립 부담 확대, 자산운용수익률의 하락 전망의 영향으로 크게 악화될 것임.

- FY2005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, 자동차보험의 성장 둔화로 전체 성장률은 둔화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.
- 손해보험의 수익성은 손해율의 상승과 자산운용수익률의 하락으로 감소할 전망이다.

<표 IV-1> FY2005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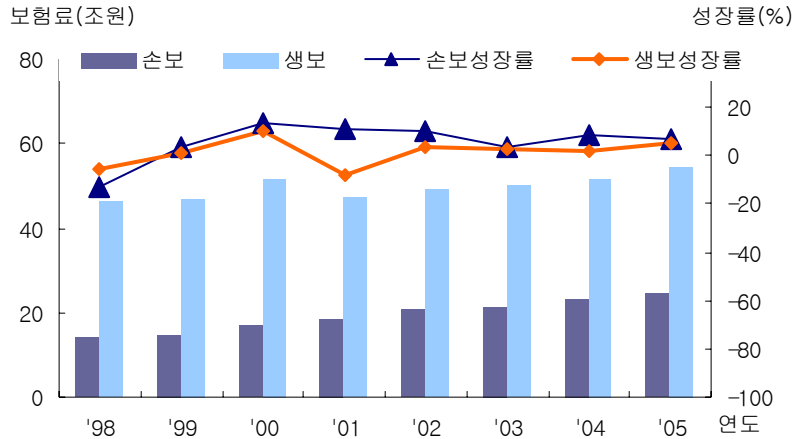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조원, %)

| 구 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생명보험 | 46.8 (0.8) | 51.7 (10.5) | 47.4 (-8.3) | 49.1 (3.6) | 50.4 (2.7) | 51.4 (2.1) | 54.2 (5.3) |
| 손해보험 | 14.8 (3.9) | 16.9 (13.8) | 18.7 (10.9) | 20.6 (10.3) | 21.4 (3.7) | 23.3 (8.9) | 24.8 (6.7) |
| 전 체 | 61.6 (1.5) | 68.6 (11.3) | 66.1 (-3.6) | 69.7 (5.5) | 71.8 (3.0) | 74.7 (4.1) | 79.0 (5.8) |

주 : ()은 전년대비 억단위 증가율임.

- FY2004 보험산업은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한 손해보험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,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생명보험의 저성장으로 4.1%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.
- 생명보험 산업은 CI보험 등 기타 보장성보험이 성장하는 반면, 종신보험의 성장률 둔화 지속, 생사혼합보험의 감소로 인한 저축성보험의 비중 축소 등으로 저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됨.
-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자동차보험의 고성장과 장기손해보험의 상해/질병 부문에 대한 수요 증가로 8.9%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.

<그림 IV-1>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규모 및 성장률 추이



나. 보험침투도

○ FY2005 보험침투도⁴⁾는 보험산업의 저성장 기조의 지속 전망으로 최근 5년 연속 보험료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을 하회하면서 9.7%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.

-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보험침투도는 전년도 보다 각각 0.1%p 하락한 6.6%, 3.1%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.

○ FY2004 보험침투도의 경우 생명보험은 6.7%, 손해보험은 3.0%, 보험산업 전체적으로는 FY2003에 비해 0.3%p 감소한 9.7%로 추정됨.

4) 보험침투도(insurance penetration)는 보험산업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, 국내총생산(GDP)에 대한 수입보험료의 백분율로 나타냄. 2002년 이후의 GDP는 잠정치 또는 전망치임.

<표 IV-2> 보험침투도 전망

(단위 : %)

| 구 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생명보험 | 9.7 | 9.9 | 8.6 | 8.2 | 7.0 | 6.7 | 6.6 |
| 손해보험 | 3.1 | 3.2 | 3.4 | 3.5 | 3.0 | 3.0 | 3.1 |
| 전 체 | 12.8 | 13.1 | 12.0 | 11.7 | 10.0 | 9.7 | 9.7 |

다. 1인당 보험료

- FY2005의 국민 1인당보험료, 즉 보험밀도(insurance density)는 163만원 정도로 FY2004에 비해 5.2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1인당 생명보험료는 4.8% 증가하고 손해보험료는 6.0%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.
- FY2004의 1인당보험료는 155만원 정도로 FY2003보다 3.5%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.

<표 IV-3> 1인당 보험료 전망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생명보험 | 1,003 | 1,099 | 1,001 | 1,030 | 1,052 | 1,068 | 1,119 |
| 손해보험 | 318 | 359 | 394 | 432 | 446 | 483 | 512 |
| 전 체 | 1,321 | 1,458 | 1,395 | 1,462 | 1,498 | 1,551 | 1,631 |

주 : 인구는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하는 장래추계인구(2001.12)를 사용함.

라. 생·손보 구성비

- 생·손보 구성비(수입보험료 기준)는 전체 보험산업에서 생명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
 - FY2005에도 손해보험이 생명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인 비중을 확대해 갈 전망이다.
 - FY2005 구성비는 68.6% : 31.4%로 FY2004에 비해 생명보험의 비중이 0.3%p 감소할 것으로 보임.

<표 IV-4> 생·손보 구성비 전망

(단위 : %)

| 구 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생명보험 | 75.9 | 75.4 | 71.7 | 70.4 | 70.2 | 68.9 | 68.6 |
| 손해보험 | 24.1 | 24.6 | 28.3 | 29.6 | 29.8 | 31.1 | 31.4 |

마. 총자산

- FY2005 보험산업 전체 총자산은 수입보험료의 완만한 성장과 준비금 규모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과 더불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자산 운용수익률 하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년 대비 13.9% 증가한 294조 3천억원으로 전망됨.
 - 생명보험은 전년보다 14.8% 증가한 247조 7천억원으로 전망되며, 손해보험은 전년보다 9.6% 증가한 4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.

<표 IV-5> FY2005 보험산업 총자산 전망

(단위 : 조원, %)

| 구 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생명보험 | 110.3 (19.5) | 120.7 (9.5) | 143.0 (18.5) | 164.2 (14.8) | 187.4 (14.1) | 215.7 (15.1) | 247.7 (14.8) |
| 손해보험 | 26.5 (18.0) | 28.1 (6.0) | 32.7 (16.7) | 35.4 (8.1) | 38.8 (9.8) | 42.6 (9.8) | 46.7 (9.6) |
| 전 체 | 136.8 (19.2) | 148.8 (8.8) | 175.7 (18.1) | 199.6 (13.6) | 226.2 (13.3) | 258.3 (14.2) | 294.3 (13.9) |

주 : ()는 전년대비 증가율임.

2. 생명보험

가. 수입보험료 전망

1) 종목 전체

- FY2005 생명보험시장은 주력 보험종목에 대한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투자부진이 소진되고 내수 경제의 제한적 회복을 반영하여 완만한 증가가 예상됨.
 - 2005년 내수부문의 제한적 회복에 따라 수입보험료의 소폭 성장이 예상되고, 2차 방카슈랑스의 실시 및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이 잠재되어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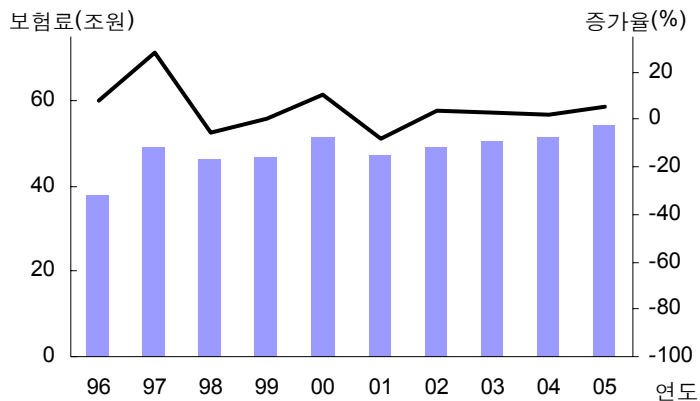
- FY2005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는 보장성보험과 연금보험의 소폭 성장과 변액보험의 시장 확대에 힘입어 FY2004 대비 5.3% 성장한 54조 2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.
 - 내수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배경으로 종신보험의 신계약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가운데 CI보험 등 기타 보장성 보험이 성장하고, 또한 금리연동형 및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늘면서 완만한 성장이 전망됨.
 - 내년도 생명보험 산업은 전통적 보험상품에 대한 시장성숙이 심화되는 가운데 생존보장 니즈로 보험수요가 전환되면서 건강보험과 연금 및 투자형 보험이 성장하는 선진국형 수요구조로 전환이 가속화 될

것으로 예상됨.

- FY2004는 종신보험의 성숙이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CI등 기타 보장성 보험이 성장하겠으나 생사혼합보험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저축성보험의 비중 축소와 단체보험의 축소로 저조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.

- FY2004의 보험시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, 보험수요 위축, 세제지원 축소 영향, 시중금리의 지속적 인하, 단체보험의 수요 위축 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뚜렷한 보험수요 성장 동력이 부재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됨.

<그림 IV-2>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- FY2005 생명보험 산업의 수익성은 미보고발생손해액(IBNR) 적립, 종신보험에 대한 표준신계약비 예외조항 폐지와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의 순차적 도입, 위험기준자본(RBC)제도의 도입 등이 예정되어 있어 순이익의 급격한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.

- 또한, 저금리 정책의 지속 전망에 따른 이차손 확대 가능성과 보장성 보험의 수요 증가로 인한 위험율차 손익의 악화 가능성은 생명보험

산업의 손익구조를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됨.

<표 IV-6>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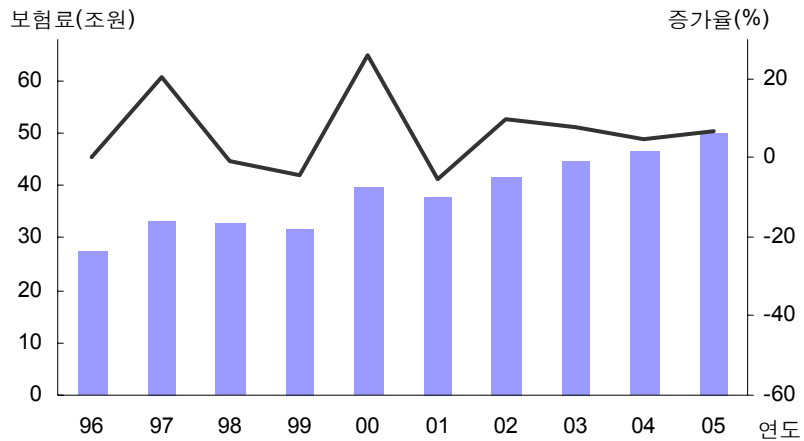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개인보험 | | 단체보험 | | 생명보험전체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
|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
| FY1997 | 332,648 | 20.6 | 156,911 | 48.3 | 489,559 | 28.3 |
| FY1998 | 330,376 | -0.7 | 133,529 | -14.9 | 463,904 | -5.2 |
| FY1999 | 316,002 | -4.3 | 151,473 | 13.4 | 467,554 | 0.8 |
| FY2000 | 398,721 | 26.1 | 117,817 | -22.2 | 516,538 | 10.5 |
| FY2001 | 377,799 | -5.2 | 95,844 | -18.7 | 473,643 | -8.3 |
| FY2002 | 415,493 | 10.0 | 75,175 | -21.6 | 490,668 | 3.6 |
| FY2003 | 447,161 | 7.6 | 56,764 | -24.5 | 503,925 | 2.7 |
| FY2004(E) | 467,080 | 4.5 | 47,576 | -16.2 | 514,656 | 2.1 |
| FY2005(F) | 498,790 | 6.8 | 43,245 | -9.1 | 542,035 | 5.3 |

2) 개인보험

- FY2005 개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이 양호한 성장을 하고 내수회복에 따른 생존보험의 수요가 회복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6.8% 증가한 49조 9천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FY2004에는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저조로 사망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존보험의 상대적 저성장과 생사혼합보험의 성장률 하락으로 2년 연속 성장률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4.5% 증가한 46조 7천억원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.
- 종신보험 시장의 신계약 정체현상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련 선진형 보장성상품의 판매확대 영향으로 보장성보험의 비중이 증가하는 등 보장성 위주의 상품구조 개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-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개인보험에서 사망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IMF 체제가 시작된 FY1997 20.1% 수준에서 FY2005에는 58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, 이는 전체 생명보험의 53.4%에 해당함.
- FY2003에는 금융기관대리점에 의한 개인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허용되면서 2003년 9월부터 2004년 3월 중 초회보험료가 월평균 3,000억원을 넘어 저축성보험⁵⁾의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FY2004에 들어서는 월 1,000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비중도 축소됨.

<그림 IV-3> 개인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5) 편의상 저축성보험은 생존과 생사혼합을 지칭함.

<표 IV-7> 개인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생존보험 | | 사망보험 | | 생사혼합보험 | | 개인보험계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
|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
| FY1997 | 145,264 | -22.4 | 66,733 | 39.6 | 120,651 | 196.0 | 332,648 | 20.6 |
| FY1998 | 102,113 | -29.7 | 79,249 | 18.8 | 149,014 | 23.5 | 330,376 | -0.7 |
| FY1999 | 97,808 | -4.2 | 100,461 | 26.8 | 117,813 | -20.9 | 316,082 | -4.3 |
| FY2000 | 108,661 | 11.1 | 125,393 | 24.8 | 164,667 | 39.8 | 398,721 | 26.1 |
| FY2001 | 74,955 | -31.0 | 174,334 | 39.0 | 128,510 | -22.0 | 377,799 | -5.2 |
| FY2002 | 91,424 | 22.0 | 213,677 | 22.6 | 110,392 | -14.1 | 415,493 | 10.0 |
| FY2003 | 120,375 | 31.7 | 231,844 | 8.5 | 94,942 | -14.0 | 447,161 | 7.6 |
| FY2004(E) | 127,817 | 6.2 | 260,560 | 12.4 | 78,703 | -17.1 | 467,080 | 4.5 |
| FY2005(F) | 150,842 | 18.0 | 289,467 | 11.1 | 58,481 | -25.7 | 498,790 | 6.8 |

주 : FY2002부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.

가) 생존보험

- FY2005 생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연금보험 수요 회복과 방카슈랑스 채널 개방, 변액보험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8.0% 증가한 15조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
 - 경제불안과 저금리 지속 및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니즈가 꾸준히 증대될 것이며 보험회사도 금리연동형 및 실적배당형 연금상품 등에 꾸준히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.
 - 한편 연금보험에 대한 은행의 일시납보험 판매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면서 증권사 및 상호은행 등 새로운 시장경쟁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임.
- FY2004의 생존보험 실적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세제지원 축소로 인한 효

과가 완화되고 일시납 연금보험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일시적 수요 소진으로 전년대비 6.2%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.

- 2004년 1월부터 보험차익비과세 유지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면서 FY2003에 연금수요가 증가하고, 또한 방카슈랑스에 의한 초기 연금수요가 감소되면서 비교적 저성장에 그침.

나) 사망보험

- FY2005 사망보험의 수입보험료는 FY2004 대비 11.1%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28조 9천억원대에 이르고, 개인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8.0%를 점유,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- 종신보험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자 CI보험 등 기타 보장성 상품이 이를 대체하면서, 선진국형 다양한 보장성보험의 개발 및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 - 빠른 고령화의 진전과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상승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관련 보장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.
 - 이에 따라 포화되고 있는 종신보험에서 CI보험 등의 질병보험과 의료보장보험, 장기간병보험, DI보험 등 건강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주도 상품들이 출현하면서 보장성보험 시장내 종신보험을 대체하는 상품개발과 수요가 증가할 것임.
- FY2004 개인보험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, CI 등 신보장성 상품의 성장으로 전년 대비 12.4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.

- 사망보험은 종신보험 신계약의 감소에 따라 초회보험료의 비중이 감소하고, 계속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어 보유계약에 의한 성장 기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다) 생사혼합보험

- FY2005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금리리스크 관리를 통한 수익성 중시의 경영전략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유비중이 축소되어 전년대비 25.7% 하락한 5조 8천억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.
 - 단기 저축성보험인 생사혼합보험은 보험차익비과세 기간의 연장에 따라 장기 보유요건, 실질금리 하락으로 인한 금리경쟁력 저하 등으로 장기 저축성보험인 연금보험과의 대체관계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.
- FY2004의 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축소와 2001년 계약분 보유계약의 만기도래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7.4% 감소한 7조 8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.
 - 생사혼합보험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2001년 비과세 기간 연장 직전 판매된 5년만기 저축성보험의 만기도래로 유지계약의 감소폭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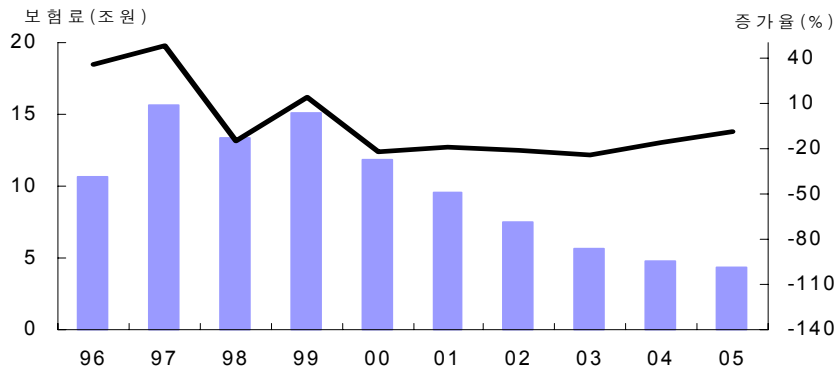
3) 단체보험

- FY2005 단체보험시장은 일반 단체보험에서의 저축성 보유비중 축소와 퇴직보험이 축소되었으나 FY2004부터의 하락세 진정이 이어져 비교적

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- 2002년 이후 종업원퇴직보험을 대체한 퇴직보험은 연봉제와 중간정산제의 확산과 직장 이동이 잦아지는 등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신규가입이 높지 않아 퇴직보험의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.
- 선택적 기업복지제도의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상실소득을 보상하는 DI보험 등 단체보험과 연계될 수 있는 신상품이 출시되는 등 복지차원의 일반단체보험의 회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내년에 예정되어 있음.

<그림 IV-4>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- FY2004의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6.2% 감소한 4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정됨.
 - 기업의 잉여자금 유치를 위해 판매했던 기업보험의 만기도래 및 해약 증가, 그리고 지속적인 저축성보험의 비중 축소에 의한 신규 계약유치의 감소추세가 이어졌음.
 - 그러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불량 물건들이 소진되어 왔고 연봉

제와 중간정산제 확산 등이 진정되면서 복지성 보험수요가 살아나고 있어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음.

나. 지급보험금 전망

1) 전체 종목

- FY2005의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은 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할 것이나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.5% 증가한 31조 3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FY2004의 총지급보험금은 개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소폭 증가하고 단체보험의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3.8% 감소한 30조 5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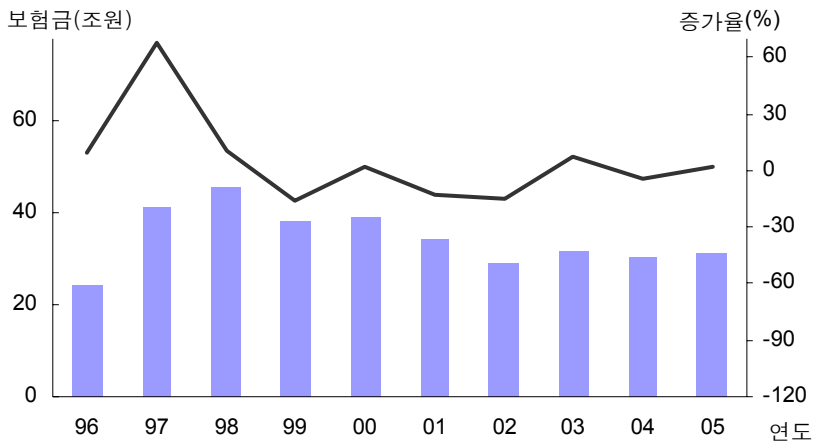
<표 IV-8> 생명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추이
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개인보험 | | 단체보험 | | 전체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
| FY1997 | 272,311 | 49.2 | 139,449 | 121.7 | 411,760 | 67.8 |
| FY1998 | 264,082 | -3.0 | 192,458 | 38.0 | 456,540 | 10.9 |
| FY1999 | 215,870 | -18.3 | 167,179 | -13.1 | 383,049 | -16.1 |
| FY2000 | 224,551 | 4.0 | 167,919 | 0.4 | 392,471 | 2.5 |
| FY2001 | 226,683 | 0.9 | 116,231 | -30.8 | 342,914 | -12.6 |
| FY2002 | 212,197 | -6.6 | 81,983 | -29.5 | 294,180 | -14.4 |
| FY2003 | 255,554 | 20.4 | 61,840 | -24.6 | 317,394 | 7.9 |
| FY2004(E) | 255,721 | 0.1 | 49,673 | -19.7 | 305,394 | -3.8 |
| FY2005(F) | 270,619 | 5.8 | 42,332 | -14.8 | 312,951 | 2.5 |

- FY2005 개인보험부문의 총지급보험금 규모는 생존 및 생사혼합보험에
서는 감소하고, 사망보험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면서 FY2004 대비
5.8% 증가한 27조 1천억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-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저축성보험 비중의 축소로 수입보험료 감소와
함께 5년짜리 저축성보험의 만기 도래로 지급보험금이 증가할 것으로
예상되나, 절대적 규모의 감소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임.
 - 사망보험의 경우 종신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증가하겠으나 보험사의 유
지정책으로 실효·해약이 감소하고 기타 보장성보험 신계약이 증가하
면서 전체적으로는 FY2004 대비 다소 감소할 것임.
 - 생존보험의 경우 보험차익비과세 기간의 연장에 따른 보험소비자의
계약유지 유인효과가 증가하면서 환급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
반면, 이전 비과세혜택을 받는 계약의 만기보험금이 증가하면서 소폭
증가할 것임.

<그림 IV-5> 생명보험 총지급보험금 추이



2) 개인보험

- FY2004 개인보험 총지급보험금은 FY2004 지급보험금 급증에 대한 상대적 축소와 계약유지율 상승으로 지급보험금이 소폭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0.1% 증가한 25조 6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됨.
-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IMF 직후 집중적으로 판매한 고금리상품 중 5년만기 보험상품의 만기도래에 의한 보험금지급이 FY2003 크게 늘어난 데 따른 상대적 축소와 비과세 기간 연장에 따른 유지유인으로 지급보험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.
- 생존보험의 경우 FY2003의 보험차익비과세 연금보험의 만기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급증 후 상대적 축소와 연금보험의 신계약 증가에 따른 지급요인 감소로 지급보험금 축소가 예측됨.

<표 IV-9> 개인보험 종목별 총지급보험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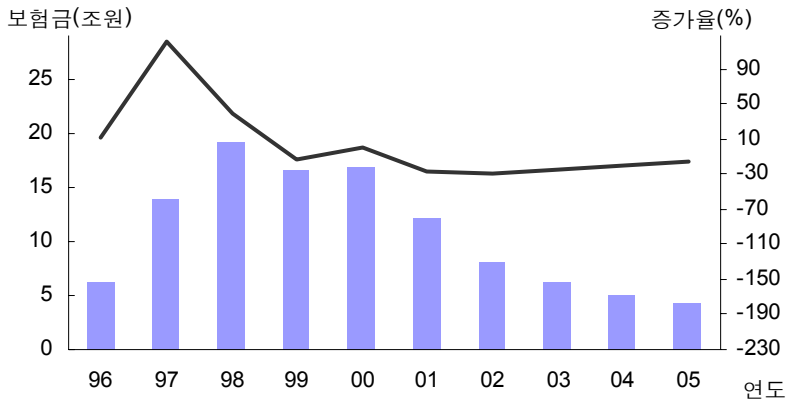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억원, %)

| 구 분 | 생존보험 | | 사망보험 | | 생사혼합보험 | | 개인보험 계 |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 금액 | 증가율 |
| FY1997 | 196,913 | 39.6 | 17,481 | 74.5 | 57,916 | 83.7 | 272,310 | 49.2 |
| FY1998 | 147,104 | -25.3 | 29,879 | 70.9 | 87,099 | 50.4 | 264,082 | -3.0 |
| FY1999 | 75,019 | -49.0 | 30,025 | 0.5 | 110,826 | 27.2 | 215,870 | -18.3 |
| FY2000 | 71,612 | -4.5 | 36,040 | 20.0 | 116,898 | 5.5 | 224,551 | 4.0 |
| FY2001 | 64,238 | -10.3 | 46,263 | 28.4 | 116,182 | -0.6 | 226,683 | 0.9 |
| FY2002 | 52,623 | -18.9 | 55,419 | 19.8 | 104,155 | -10.4 | 212,197 | -6.6 |
| FY2003 | 60,712 | 15.4 | 74,666 | 34.7 | 120,177 | 15.4 | 255,554 | 20.4 |
| FY2004(E) | 57,182 | -5.8 | 89,093 | 19.3 | 109,446 | -8.9 | 255,721 | 0.1 |
| FY2005(F) | 57,330 | 0.3 | 103,560 | 16.2 | 109,729 | 0.3 | 270,619 | 5.8 |

3) 단체보험

- FY2005 단체보험 총지급보험금은 단체보험의 보유계약 축소와 관리강화에 따른 지출요인이 감소하면서 FY2004 대비 14.8% 감소한 4조 2천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- FY2001년 이후 이차역마진 축소와 수익성 중시의 경영전략으로 저축성보험의 보유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왔으나 기본 수요에 도달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되어 지급보험금의 절대규모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.
- FY2004 단체보험 총지급보험금은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겠으나 감소폭이 줄어 FY2003 대비 19.7% 감소한 5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.
 - 일반 단체보험의 경우 기업성 보험의 만기도래 영향으로 보험금이 증가하겠으나 저축성보험 비중의 지속적인 축소 노력으로 저축성보험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환급금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 - 또한, 연봉제, 중간정산제 등의 불안정요소가 안정화되고 기업복지부문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FY2003부터 퇴직보험 및 일반 단체보험의 보험금지급률 안정화가 이어지겠음.

<그림 IV-6> 단체보험 지급보험금 추이



4) 보험금지급률 전망

- 총지급보험금은 단체보험의 안정화 추세로 FY2005의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대비 1.2%p 개선된 58.1%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FY2004의 보험금지급률은 단체보험의 만기도래에 의한 보험금 지급 감소 및 개인보험의 해약액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여 FY2002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

<표 IV-10>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전망

(단위 : %)

| 구 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지급률 | 81.9 | 75.9 | 72.5 | 60.0 | 63.0 | 59.3 | 58.1 |

3. 손해보험

가. 개관

- FY2005 손해보험 산업은 FY2004 성장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, 전년 대비 상대적 고성장을 나타낸 올해보다는 다소 낮은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.
- 2005년 내수부문의 완만한 회복세와 장기손해보험의 꾸준한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에서의 성장률 하락으로 FY2005 손해보험 전체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아질 것임.

1) 수입보험료 및 손해율

- FY2005 손해보험 산업은 내수부문의 완만한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6.7% 성장하여 원수보험료 24조 8,3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.
- 자동차보험은 보험요율의 소폭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반면, 자동차 내수시장의 침체 지속 전망과 FY2004 고성장에 따른 상대적 영향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임.
 -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요율인상과 유가급등 및 교통법규단속강화에 따른 사고율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, 약관개정에 따른 지급기준 확대 및 대당손해액 증가 등으로 소폭 상승할 것임.
- 장기손해보험은 2005년 생명보험회사의 실손보상 허용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, 상해, 질병부문에 대한 수요 지속 및 신상품 개발 노력 등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할 전망이다.

- 손해율은 상해, 질병부문의 보험금 증가 전망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것임.
 - 일반손해보험은 내수경제의 완만한 성장 전망과 해외 재보험시장의 안정화로 수입보험료 성장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.
 - 보증보험은 유사보증기관과의 경쟁이 지속되고, 2004년 하반기 보험료 인하 조정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.
- FY2004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은 자동차보험의 고성장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꾸준한 수요 확대로 8.9% 증가한 약 23조 3천억원으로 예상됨.
- 자동차보험은 전년도 저성장 대비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며,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내수불황에도 불구하고 상해, 질병부문의 확대에 의한 성장이 예상됨.
 - 반면, 일반손해보험은 경기침체 및 해외 재보험시장 안정화 등에 따라 특종보험을 제외한 종목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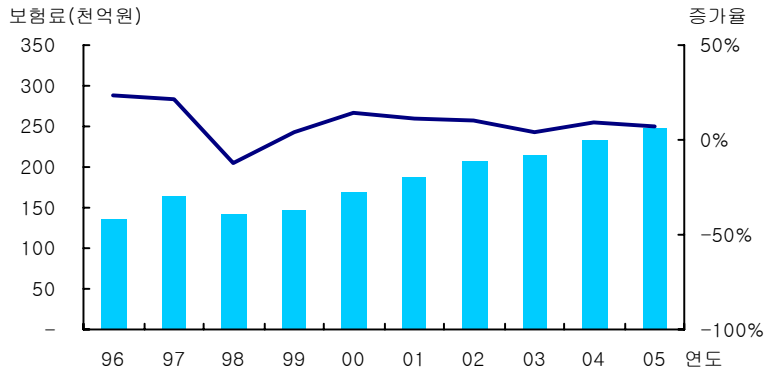
<표 IV-11>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손보전체 | 148,149 | 168,617 | 186,959 | 206,129 | 213,783 | 232,720 | 248,342 |
| | 3.9 | 13.8 | 10.9 | 10.3 | 3.7 | 8.9 | 6.7 |
| 보증보험 제외 | 142,411 | 162,586 | 179,803 | 196,767 | 204,364 | 223,765 | 239,688 |
| | 4.4 | 14.2 | 10.6 | 9.4 | 3.9 | 9.5 | 7.1 |

주 : 1) 해외원보험과 퇴직보험, 부수사업 실적 포함임.

2) 하단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임.

<그림 IV-7>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**2) 보험종목별 점유율**

○ 보험종목별 점유율에 있어서는 장기손해보험(개인연금 및 퇴직보험 포함)이 48.0%, 자동차보험이 35.9%, 일반손해보험이 16.1%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됨.

- 장기손해보험의 성장이 확대되고, 일반손해보험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상대적으로 자동차보험의 점유율이 축소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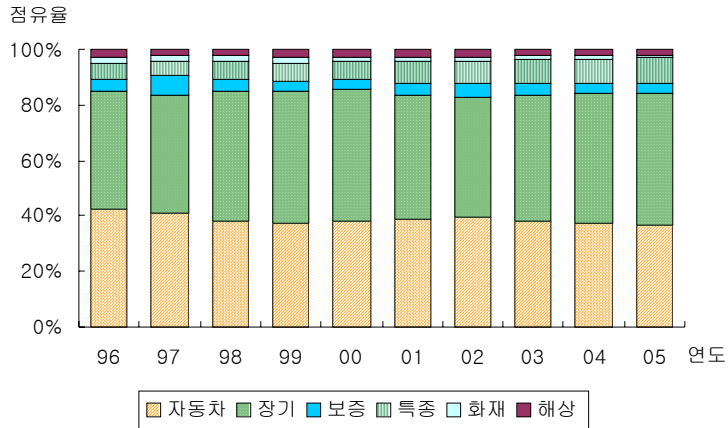
<표 IV-12>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전망

(단위 :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일반 | 15.4 | 14.4 | 16.0 | 17.2 | 16.2 | 16.2 | 16.1 |
| 자동차 | 37.4 | 38.5 | 39.9 | 38.4 | 37.2 | 37.0 | 35.9 |
| 장기 | 47.2 | 47.1 | 44.1 | 44.4 | 46.5 | 46.8 | 48.0 |
| 계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 100.0 |

주 : 일반에는 해외원보험, 부수사업이, 장기에는 개인연금과 퇴직보험이 포함됨.

<그림 IV-8>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



나. 보험종목별 전망

1) 화재보험

- FY2005 화재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-1.0% 증가한 2,815억원으로 전망되며, FY2004에는 전년대비 -10.0% 증가한 2,84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 - FY2004 화재보험은 전년도 요율인하 조정 효과와 더불어 경기불황으로 인한 보험가입 축소,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기업성 종합보험으로의 계약 이전 등으로 10.0%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.
 - FY2005에는 주택화재보험을 중심으로 요율인상요인이 발생하고, 방카슈랑스로 인한 종합보험으로의 계약 이전이 도입 첫해인 FY2003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보험 성장 감소폭이 축소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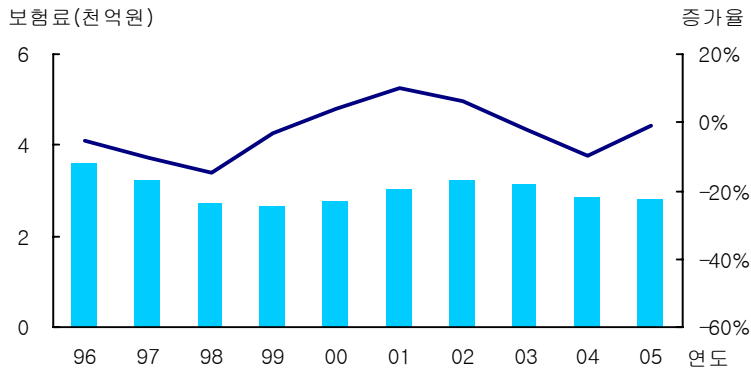
- 이 밖에도 최근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관리, 중소기업의 가입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시장확대가 기대됨.
- 그러나, 민간소비 증가율 정체가 예상되고 건설 및 설비투자 부문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화재보험의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.

<표 IV-13> 화재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2,646 | 2,755 | 3,035 | 3,219 | 3,160 | 2,845 | 2,815 |
| 증가율 | -3.3 | 4.1 | 10.2 | 6.1 | -1.8 | -10.0 | -1.0 |

<그림 IV-9> 화재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- FY2004 화재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성장 감소에도 불구하고 58.6%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, FY2005는 화재보험 성장감소폭 축소 전망에 따라 55.7%의 손해율이 전망됨.

- FY2004의 경우 보험료 성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

태풍 등 자연재해나 대규모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은 다소 개선된 58.6%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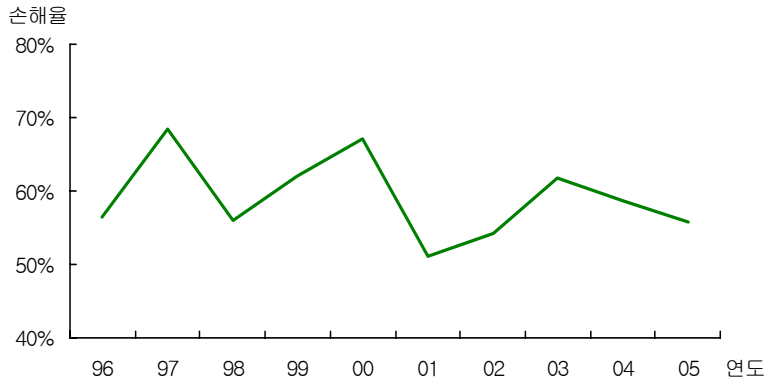
- FY2005에는 화재보험 대부분에서 효율인상요인이 나타나는 등 성장 이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대형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손해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.

<표 IV-14> 화재보험 손해율 전망

(단위 :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손해율 | 61.9 | 67.1 | 51.1 | 54.3 | 61.7 | 58.6 | 55.7 |

<그림 IV-10> 화재보험 손해율 추이



2) 해상보험

- FY2005 해상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-0.7% 성장한 4,997억원에 이를 전망이며, FY2004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-4.1% 성장한 5,03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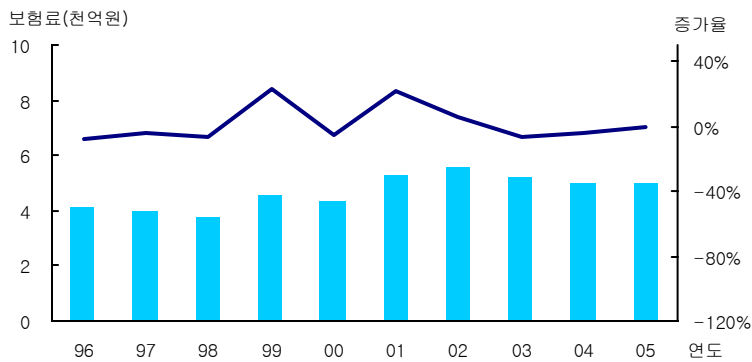
- FY2004의 경우, 9.11 테러 이후 급격히 경색되었던 해외 재보험시장이 안정화 단계를 지속하면서 항공보험의 성장 급감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.
 - 반면, 수출 증가세 지속으로 선박 및 적하보험의 경우 7.8%, 17.8%의 성장률을 보일 것임.
- FY2005에는 수출증가율 둔화 전망에 따라 선박, 적하보험은 성장이 다소 줄어들고, 해외 재보험시장 안정화 효과가 어느 정도 소진되어 항공보험의 마이너스 성장폭이 감소할 것임.

<표 IV-15> 해상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4,571 | 4,344 | 5,292 | 5,605 | 5,242 | 5,030 | 4,997 |
| 증가율 | 22.3 | -5.0 | 21.8 | 5.9 | -6.5 | -4.1 | -0.7 |

<그림 IV-11> 해상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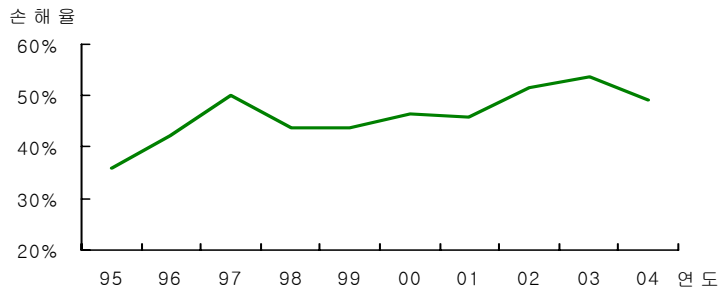
- FY2005 해상보험은 선박보험 및 적하보험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 FY2004에 비해 다소 악화된 58.2%의 손해율을 나타낼 것임.
- 해상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마이너스 성장폭이 감소될 전망이나, 이는 항공보험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상보험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보험, 적하보험에서의 성장률 둔화로 손해율은 상승할 것임.
- FY2004의 해상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, 태풍 등 대규모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전년도보다 안정된 54.3%의 손해율을 나타낼 전망이다.

<표 IV-16> 해상보험 손해율 전망

(단위 :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손해율 | 43.9 | 46.4 | 46.0 | 51.6 | 57.7 | 54.3 | 58.2 |

<그림 IV-12> 해상보험 손해율 추이



가) 적하보험

- FY2005 적하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.5% 증가한 2,630억원으로 전망되며, FY2004은 17.8% 증가한 2,469억원으로 추정됨.
- FY2004 경기침체 하에서도 수출증가율 급상승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적하보험 보험료 수입은 크게 성장한 17.8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- FY2005의 경우 경기침체 기조가 지속되고 급속히 확대되었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, 그리고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으로 달러화 약세 기조가 예상됨에 따라 적하보험 성장은 6.5%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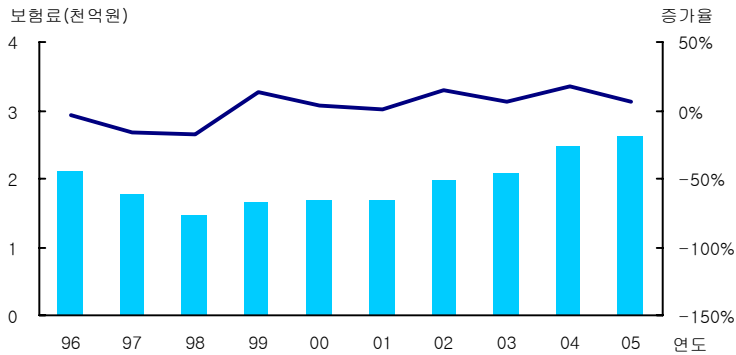
<표 IV-17> 적하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1,649 | 1,704 | 1,704 | 1,963 | 2,096 | 2,469 | 2,630 |
| 증가율 | 13.3 | 3.3 | 0.0 | 15.3 | 6.8 | 17.8 | 6.5 |

주 :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1998~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.

<그림 IV-13> 적하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나) 선박보험

- FY2005 선박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2.3% 증가한 1,923억원으로 전망되며, FY2004의 경우 7.8% 증가한 1,880억원으로 추정됨.
- 해외 재보험시장 안정에 따른 보험료 인하 및 미-이라크 전쟁으로 급등하였던 전쟁보험료가 인하되면서 FY2004 선박보험 성장은 7.8%, FY2005 성장률은 2.3%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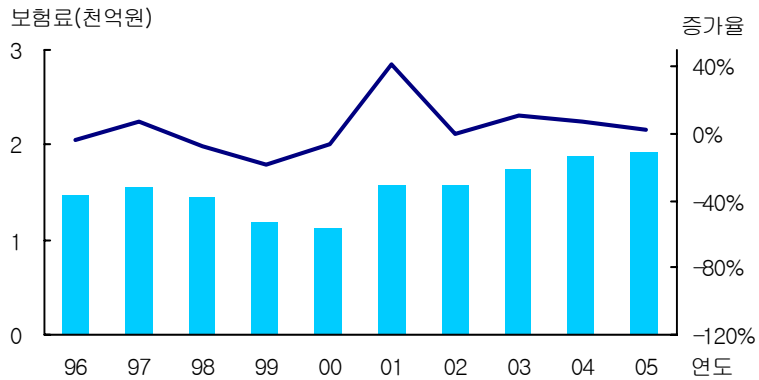
<표 IV-18> 선박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1,188 | 1,112 | 1,572 | 1,566 | 1,744 | 1,880 | 1,923 |
| 증가율 | -18.1 | -6.4 | 41.4 | -0.4 | 11.4 | 7.8 | 2.3 |

주 :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1998~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.

<그림 IV-14> 선박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다) 항공보험

- FY2005 항공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-59.2% 증가한 471억원으로 전망되며, FY2004의 경우 -19.2% 성장한 381억원으로 추정됨.
 - FY2004 9.11 테러로 인해 급등하였던 요율이 하락하면서 항공보험 보험료 성장은 -59.2%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.
 - FY2005에는 해외 재보요율 인하 효과가 어느 정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마이너스 성장폭이 감소한 -19.2% 성장이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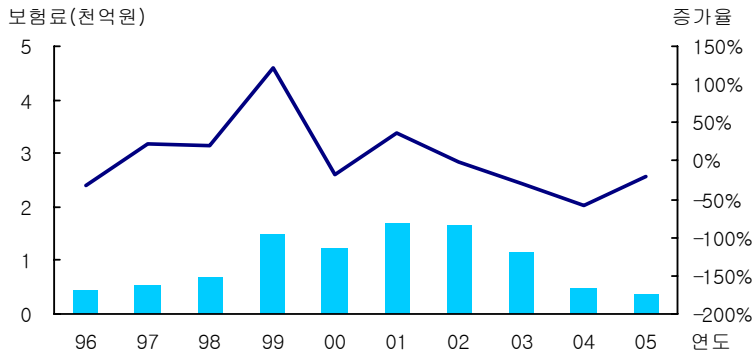
<표 IV-19> 항공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1,494 | 1,223 | 1,677 | 1,666 | 1,155 | 471 | 381 |
| 증가율 | 122.3 | -18.1 | 37.1 | -0.7 | -30.7 | -59.2 | -19.2 |

주 :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1998~FY2000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자료를 이용하여 세부종목별로 분리하였음.

<그림 IV-15> 항공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3) 자동차보험

○ FY2004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8.1% 성장한 8조 6,054 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, FY2005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3.5% 성장한 8조 9,066억원으로 추정됨.

- FY2004 자동차보험 성장률은 내수경기 회복지연에 따른 자동차보유 대수 증가폭의 감소 및 유가급등에 따른 소형차 구성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'04.6월 범위요율 인상, '05.1월 참조순보험요율 인상조정, 대물배상 가입강제화에 따른 가입율 증가 및 대물 분납가입자의 일시납

전환 등에 힘입어 8.1%의 성장이 예상됨.

- 2003년 11월 기본보험료 평균 3.5% 인상에 이어 2004년 4월, 6월 범위요율 조정으로 회사별로 2~3% 추가 인상한 바 있음.
- FY2005 자동차보험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, 전년도 고성장세 대비 상대적으로 성장폭은 둔화될 것임.
- 2005년 자동차보험 보험료 성장은 자동차보유대수의 증가와 '05.1월 보험요율 인상요인으로 3.5%의 성장이 예상됨.
- 한편, 자동차보험은 등록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의무보험 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, 내년도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에 따른 영향은 새로운 수요 창출이라기보다 채널별 시장점유율상의 변화가 예상됨.
- 또한,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가격경쟁이 가속화될 경우, 전체 자동차보험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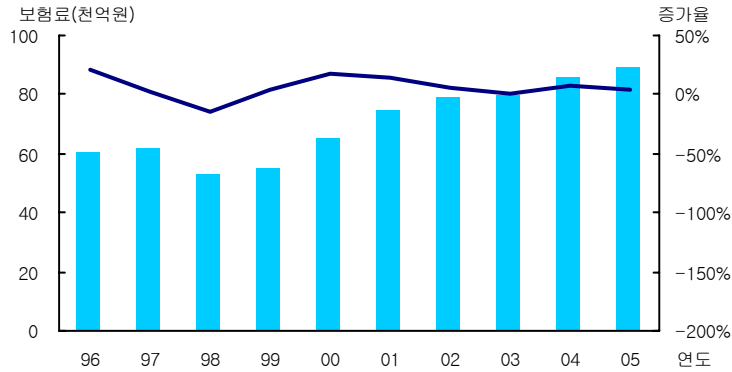
<표 IV-20>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책임 보험 | 보험료 | 21,205 | 23,553 | 27,508 | 28,230 | 27,544 | 29,517 | 30,104 |
| | 증가율 | -3.4 | 11.1 | 16.8 | 2.6 | -2.4 | 7.2 | 2.0 |
| 임의 보험 | 보험료 | 34,163 | 41,430 | 47,093 | 50,908 | 52,062 | 56,537 | 58,962 |
| | 증가율 | 10.8 | 21.3 | 13.7 | 8.1 | 2.2 | 8.6 | 4.3 |
| 합계 | 보험료 | 55,368 | 64,983 | 74,601 | 79,138 | 79,606 | 86,054 | 89,066 |
| | 증가율 | 4.9 | 17.4 | 14.8 | 6.1 | 0.6 | 8.1 | 3.5 |

주 : 세부종목의 분류통계가 없는 FY2001 자료는 보험개발원의 요율검증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을 분리하였음.

<그림 IV-16>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○ FY2004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3.2%, FY2005는 73.7%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.

- FY2004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'04.8월 약관상 지급기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요율 인상조정과 대형 재해사고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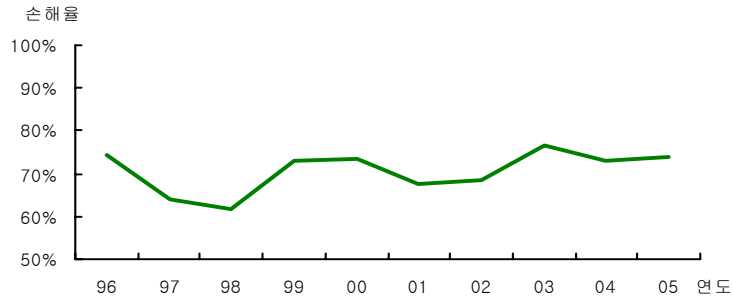
- FY2005 손해율은 보험요율 인상과 유가급등 및 교통법규단속 강화에 따른 사고율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, 평균할인할증률의 하락과 대당 손해액 규모 증가 등에 의해 73.7%로 전망됨.

<표 IV-21>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

(단위 :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손해율 | 73.0 | 73.2 | 67.6 | 68.4 | 76.7 | 73.2 | 73.7 |

<그림 IV-17> 자동차보험 손해율 추이



4) 보증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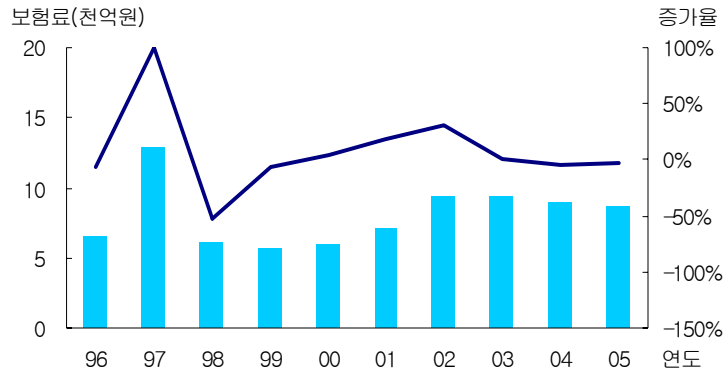
- FY2005 보증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-4.9% 성장한 8,955억 원으로 전망되며, FY2004 수입보험료는 -3.4% 증가한 8,654억 원으로 추정됨.
 - FY2004 보증보험은 2004년 10월 이후 이행보증보험 -25%, 쇼핑몰보증보험 -40% 등 요율을 인하하였고, 유사보증기관의 시장잠식으로 보증보험 영업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.
 - FY2005 보증보험은 국내 경제성장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경기에 민감한 보증보험의 특성 및 FY2004 하반기 이후의 상품별 요율인하 조정의 영향으로 보험료 성장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.
 - 반면, 경매보증보험 개발,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보증보험 지원 등은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, 전년도 마이너스 성장 대비 감소 폭은 다소 줄어들 것임.

<표 IV-22> 보증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5,738 | 6,021 | 7,156 | 9,362 | 9,419 | 8,955 | 8,654 |
| 증가율 | -6.1 | 4.9 | 18.9 | 30.8 | 0.6 | -4.9 | -3.4 |

<그림 IV-18> 보증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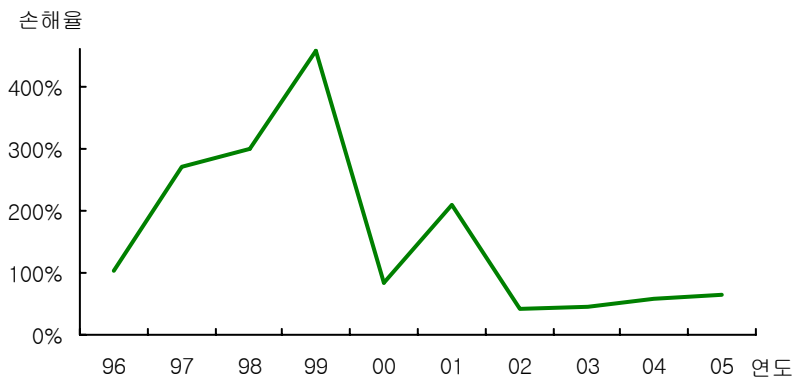


- FY2004 보증보험 손해율은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및 보험요율 인하 등으로 보험료 성장이 축소됨에 따라 56.9%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.
- FY2005에는 이행보증보험 등 효율인하 영향 및 경기침체에 따른 보험료 감소가 지속되고 중소기업·신용불량자 지원 차원에서의 상품개발, 판매에 따른 보험금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증보험 손해율은 65.4%로 전망됨.

<표 IV-23> 보증보험 손해율 전망

(단위 :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손해율 | 456.0 | 79.5 | 208.3 | 42.0 | 44.1 | 56.9 | 65.4 |

<그림 IV-19> 보증보험 손해율 추이**5) 특종보험**

- FY2005 특종보험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12.5% 증가한 2조 3,526억원으로 기술, 책임, 상해, 종합보험 등 특종보험 시장 전종목에 서의 고른 성장세가 예상됨.
- FY2004 수입보험료는 소비문화, 투자부진에도 불구하고, 기술보험에서의 높은 성장과 방카슈랑스로 인한 종합보험 확대 등으로 11.6% 증가한 2조 920억원으로 추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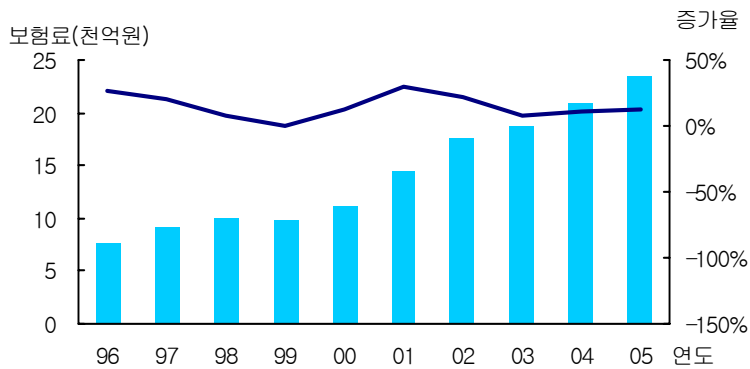
<표 IV-24> 특종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9,852 | 11,143 | 14,430 | 17,484 | 18,741 | 20,920 | 23,526 |
| 증가율 | -0.6 | 13.1 | 29.5 | 21.2 | 7.2 | 11.6 | 12.5 |

주 : FY1998~FY2000은 해외원보험, FY2001 이후는 해외원보험, 부수사업 포함 실적임.

<그림 IV-20> 특종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○ FY2005 완만한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보험료 성장 전망으로 특종보험의 손해율은 다소 개선된 43.1%가 될 것으로 전망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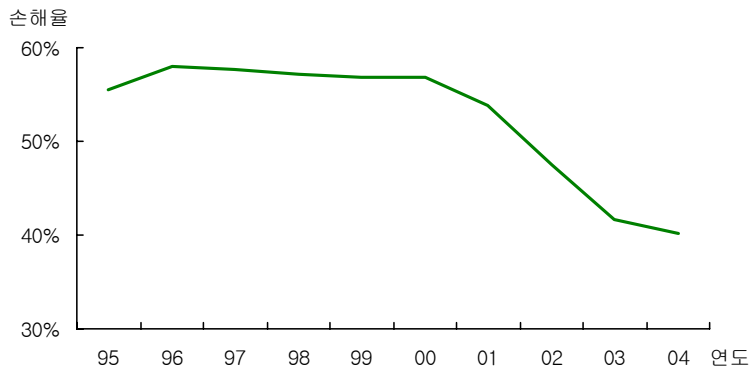
- 단,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사고 발생 증가, 특종보험 일부 종목에서의 보험료 인하요인 발생 등 손해율 상승요인도 내재되어 있음.

<표 IV-25> 특종보험 손해율 전망

(단위 :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손해율 | 56.9 | 56.8 | 53.8 | 47.5 | 57.8 | 45.9 | 43.1 |

<그림 IV-21> 특종보험 손해율 추이



가) 기술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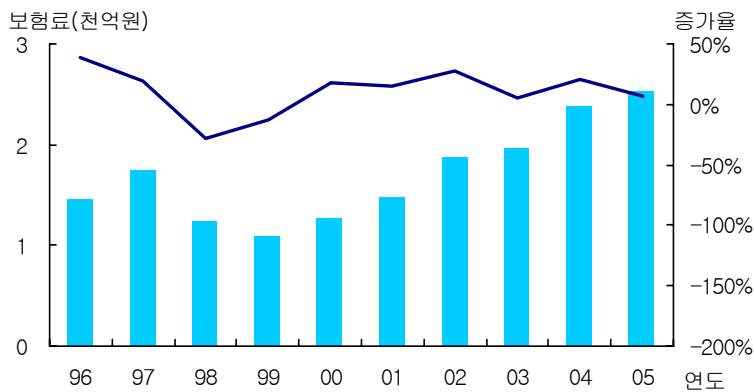
- FY2005 기술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6.2% 증가한 2,527억원으로 전망되며, FY2004은 21.3% 성장한 2,380억원으로 추정됨.
 - FY2004 상반기 대형물건 계약 등 건설공사보험에서의 실적이 급성장함에 따라 21.3%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.
 - FY2005에는 투자부문의 완만한 회복세로 보험수요 확대가 예상되나, 전년도 고성장 대비 상대적 영향으로 6.2% 성장에 그칠 것임.

<표 IV-26> 기술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1,086 | 1,277 | 1,473 | 1,872 | 1,962 | 2,380 | 2,527 |
| 증가율 | -12.5 | 17.6 | 15.3 | 27.1 | 4.8 | 21.3 | 6.2 |

<그림 IV-22> 기술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나) 배상책임보험

○ FY2005 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3.5% 증가한 6,053 억원으로 전망되며, FY2004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0.3% 증가한 5,333억원으로 전망됨.

- FY2004에는 일반배상책임보험,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등에서 보험요율이 인하되고, 내수 및 투자부진 지속에 따라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소폭 증가한 10.3%를 기록할 것임.

- FY2005 수입보험료는 책임보험 관련 경제변수의 완만한 회복 전망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화(2005.1월부터), 임원배상책임보험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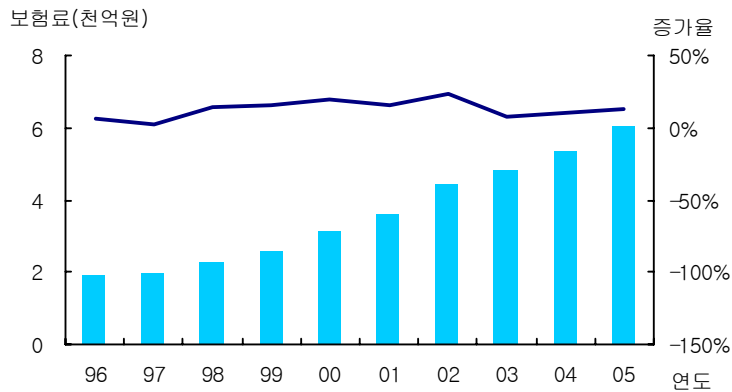
꾸준한 성장,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수요 증가 등이 성장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<표 IV-27> 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2,617 | 3,131 | 3,602 | 4,468 | 4,835 | 5,333 | 6,053 |
| 증가율 | 15.7 | 19.6 | 15.0 | 24.0 | 8.2 | 10.3 | 13.5 |

<그림 IV-23> 배상책임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다) 상해보험

- FY2005 상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15.2% 증가한 2,928억원으로 전망되며, FY2004에는 전년대비 14.7% 증가한 2,542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
- FY2004 경기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에 따른 수요 확대로 14.7%의 성장이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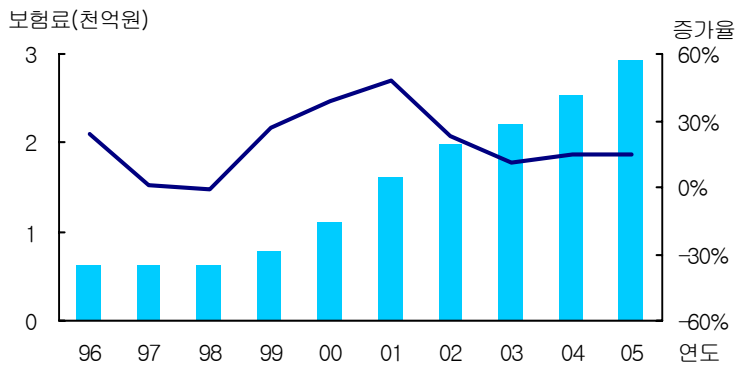
- FY2005에도 동일한 기조가 전망되지만,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내년도 생명보험의 실손보상 허용에 따른 상대적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등 상해보험 성장은 제한적일 것임.

<표 IV-28>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789 | 1,097 | 1,623 | 1,991 | 2,216 | 2,542 | 2,928 |
| 증가율 | 26.6 | 39.0 | 47.9 | 22.7 | 11.3 | 14.7 | 15.2 |

<그림 IV-24> 상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라) 종합보험

- FY2005 종합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에 비해 8.1% 증가한 9,759억원으로 전망되며, FY2004에는 6.5% 증가한 9,0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.
- FY2004 방카슈랑스를 통한 기업성 종합보험 시장 확대로 6.5%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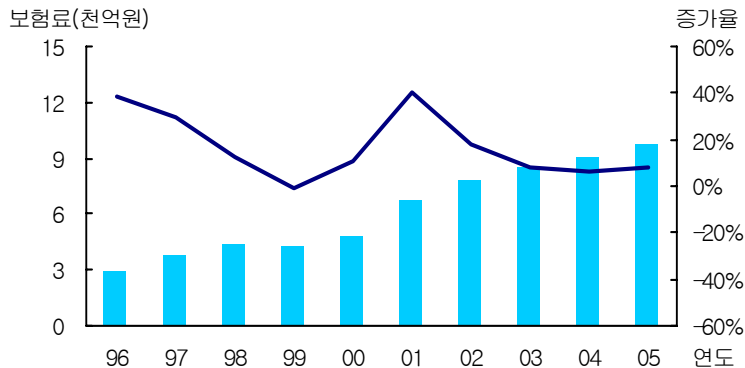
- FY2005에는 방카슈랑스 도입 초기만큼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 반면, 하반기 이후 내수 회복 전망과 주5일 근무제 확대 등에 의해 8.1%의 성장이 전망됨.

<표 IV-29> 종합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4,293 | 4,763 | 6,701 | 7,874 | 8,477 | 9,028 | 9,759 |
| 증가율 | -0.6 | 10.9 | 40.7 | 17.5 | 7.7 | 6.5 | 8.1 |

<그림 IV-25> 종합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6) 장기손해보험

- FY2005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9.6% 증가한 10조 4,266억원, FY2004에는 10.8% 성장한 9조 5,094억원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- FY2004 장기손해보험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둔화에도 불구하고,

상해 및 질병부문에 대한 수요확대가 지속되면서 10.8%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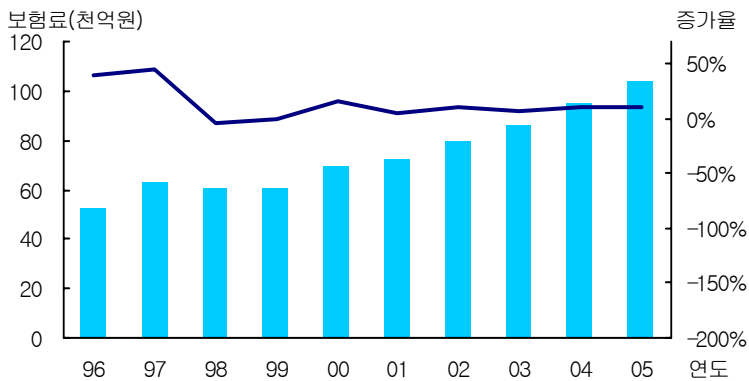
- 2005년 하반기 이후 내수 회복 전망은 장기손해보험 시장 확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, CI보험, 통합형보험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, 손해보험회사의 주력 성장 종목으로서의 영업력 강화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임.
- 반면에, 2005년부터 생명보험의 실손보상이 허용되면서 장기보장성보험의 일부가 생명보험 계약으로 유출될 것으로 전망되고, FY2004의 높은 성장률에 비하여 성장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임.

<표 IV-30>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60,307 | 69,392 | 72,882 | 80,134 | 85,794 | 95,094 | 104,266 |
| 증가율 | -0.2 | 15.1 | 5.0 | 10.0 | 7.1 | 10.8 | 9.6 |

<그림 IV-26>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추이



- FY2004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지속 성장세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, 상해 및 질병부문 가입확대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86.9%로 상승할 것임.
- FY2005에는 보장성 부분의 보험금 지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, 수입보험료 성장률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할 전망에 따라 손해율은 88.3% 수준으로 악화될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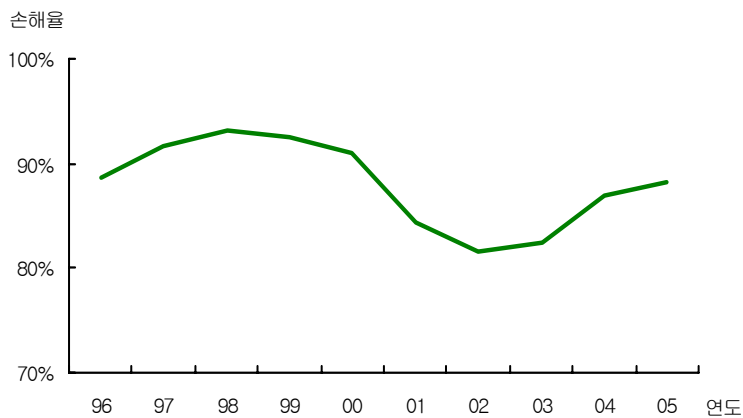
<표 IV-31>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전망

(단위 :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손해율 | 92.6 | 90.9 | 84.4 | 81.6 | 82.4 | 86.9 | 88.3 |

자료 : 손해보험회사, 『업무보고서』, 각 월호

<그림 IV-27> 장기손해보험 손해율 추이



7) 개인연금보험 및 퇴직보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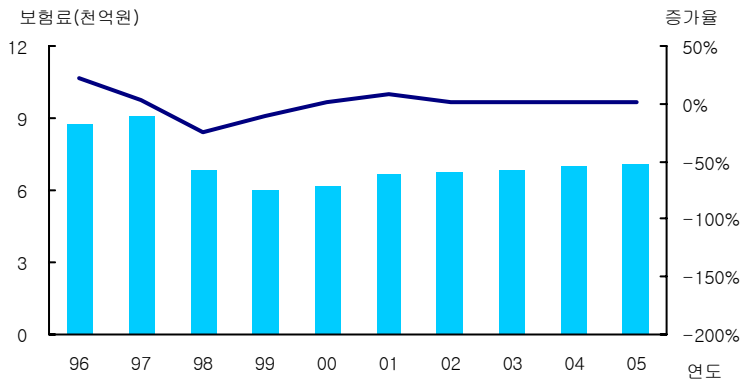
- FY2005 개인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1.2% 증가한 7,066억 원으로 전망되며, FY2004에는 1.5% 증가한 6,979억 원으로 추정됨.
-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역마진 우려와 단기성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성향으로 인한 시장수요 감소 등으로 개인연금보험의 성장은 향후 정체될 것으로 전망됨.

<표 IV-32>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6,041 | 6,157 | 6,678 | 6,786 | 6,873 | 6,979 | 7,066 |
| 증가율 | -11.1 | 1.9 | 8.5 | 1.6 | 1.3 | 1.5 | 1.2 |

<그림 IV-28> 개인연금 수입보험료 추이



- FY2005 퇴직보험 시장은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별개로 보험료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-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FY2005 수입보험료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겠

으나, 제도 도입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성장 감소가 예상된다.

<표 IV-33>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전망

(단위 : 억원, %)

| 구분 | FY1999 | FY2000 | FY2001 | FY2002 | FY2003 | FY2004(E) | FY2005(F) |
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입보험료 | 3,625 | 3,823 | 2,865 | 4,401 | 4,949 | 6,844 | 7,952 |
| 증가율 | - | 5.5 | -25.1 | 53.6 | 12.4 | 38.3 | 16.2 |